

## 머 리 말

'86년도 첫번째 「국어생활」을 내놓게 되었다. 이번 호엔 '개화기의 우리 어문에 대한 문제'를 가지고 특집을 만들었다. 지나간 일이지만, 우리 어문에 대한 자각을 가지게 되던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며, 오늘의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.

다음은 지난 12월에 문교부에서 발표한 외래어 표기법과 그 해설을 실었다. 오랜 동안 연구 검토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요, 더구나 최종안을 만드는 데 본 연구소가 전적으로 힘을 기울였기 때문이다. 이 안이 널리 알려져 국어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. 곧 '외래어 표기 용례집'(인명·지명편)이 나오면 더욱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.

이제 봄빛이 완연하다. 5월이 되면, 본 연구소가 일을 시작한 지 만 2년이 된다. 국어는 우리 민족 성립의 기본적 조건이요, 또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함에 있어 한시도 떠날 수 없는 수단이다. 본 연구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「국어생활」은 온 국민에게 올바르고 아름다운 말과 글을 쓰도록 이끌어 가려는 데 목적이 있다. 독자 여러분도 이 뜻을 이해하여,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.